

#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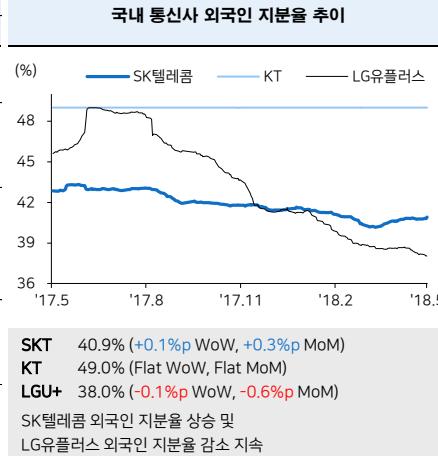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jeong@meritz.co.kr

2018.5.28

##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0.5	-1.3	1.4	-2.1	9.5	9.5	1.0	1.0	2.0	2.0	
통신업종	1.6	-0.1	-1.5	-8.2	7.6	7.6	0.8	0.8	4.0	4.0	
SK텔레콤	2.5	2.2	-5.0	-13.0	6.5	6.7	0.9	0.8	4.4	4.5	
KT	-0.9	0.4	-3.9	-9.8	10.0	9.4	0.6	0.5	4.0	4.2	
LG유플러스	1.6	5.0	-1.9	-7.0	10.1	9.4	1.0	0.9	3.3	3.6	
AT&T	1.4	-1.8	-13.2	-6.6	9.5	9.4	1.3	1.3	6.2	6.3	
Verizon	1.6	-2.5	-1.2	3.2	10.7	10.4	3.7	3.1	4.9	5.0	
T-Mobile	-0.6	-11.7	-7.4	-8.3	17.1	13.9	2.0	1.9	0.0	0.0	
Sprint	0.8	-14.2	-3.7	-16.3	26.5	572.2	0.8	0.8	0.0	0.0	
NTT Docomo	0.7	1.6	3.4	-0.9	14.5	14.4	1.8	1.7	3.5	3.8	
KDDI	0.2	1.9	10.0	-4.7	12.5	11.6	1.9	1.7	3.1	3.4	
Softbank	-6.2	-3.4	-12.8	-19.4	7.9	12.7	1.7	1.4	0.6	0.6	
China Mobile	-1.8	-0.1	-3.0	-9.5	10.4	10.1	1.2	1.1	4.7	4.9	
China Unicom	-1.8	4.5	9.7	-5.1	31.3	19.5	0.9	0.8	1.3	2.1	
China Telecom	0.0	2.5	8.1	-1.8	12.1	10.8	0.7	0.7	3.4	3.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2 업종 코멘트

### 전주 동향

5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1%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보편요금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의 마무리 후 특별한 이슈 없이 보합 수준의 주가 유지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반영 기대감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 국내 기관은 LG유플러스 순매수, 외국인은 SK텔레콤 순매수, LG유플러스 순매도

### 금주 전망

금주는 6월 1일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주요 쟁점들의 국회 논의 여부에 주목 6월 27일 일을 예정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시 자동 일률 지난 11일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역시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6월 입법 발의 가능 6월 5G 표준 및 주파수 경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률 등 주요 쟁점들 부각으로 통신업종 관심 회복 전망

###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0	21	22 석가탄신일	23 월드IT쇼 2018 개막식	24	25	26
27	28	29	30	31	6/1 6월 임시국회 소집	2

## 3 주간 뉴스

### ▶ KT '속도까지 완전 무제한 요금제' 내달 출격

(서울경제)

- LG유플러스에 이어 KT도 속도제한(QoS) 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
- 기존 KT 무제한 요금제는 10~30GB 기본 데이터 제공 후 소진 시 하루 2GB 데이터 상한을 설정
- KT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SK텔레콤과 점유율 격차를 좁힐 것이라는 방침
- ⇒ LG유플러스 완전무제한 요금제가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KT 역시 가입자 유치에 긍정적
- ⇒ 다만,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업셀링(Up-selling) 효과 기대감은 다소 둔화될 전망

### ▶ 박정호 SKT사장 "주파수 경매 무리 안 할 것"

(뉴스핌)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오는 6월 15일 주파수 경매에서 무리한 입찰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
- 100MHz 총량제한 확정으로 경쟁사를 압도하는 주파수 대역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
- 박 사장은 "최대 대역폭 120MHz가 나왔으면 달랐겠지만, 크게 무리는 안 할 계획"이라고 언급
- ⇒ 3.5GHz 주파수 총량제한이 100MHz로 확정되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압축
- ⇒ 요금 인하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경쟁사들 역시 무리한 경매 과열은 지양할 것

### ▶ 이통시장 총각 '합산규제·보편요금제' 어디로..

(Biztribune)

-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들이 여야 합의점을 찾아 입법까지 난항을 예고
- 무엇보다 6.13 지방선거 등 정치권 일정과 맞물려 법안 심사가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
-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연내 시행 목표에도, 아직 상임위 회의 개최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
- ⇒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당은 드루킹 방지법에 집중하는 등 현안에 대한 시각차 뚜렷
- ⇒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일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보편요금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존재

### ▶ SKT가 '완전 무제한 요금제' 못 내놓은 이유?

(서울경제)

- LG유플러스에 이어 KT가 '완전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면서 SK텔레콤 대응에 관심
- 통신 3사 LTE 주파수 대역폭은 SK텔레콤이 70MHz,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0MHz 보유
- 가입자당 주파수 대역폭 비교 시 LGU+와 KT는 SK텔레콤 대비 각각 36%, 13% 여유분 보유
- ⇒ SK텔레콤은 무리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기존 가입자 데이터 품질 저하를 우려
- ⇒ 이에 SK텔레콤은 일일 데이터 제한량 상한이나 멤버쉽 혜택 강화를 통해 해지를 방어에 주력

### ▶ 박정호 SKT "보편요금제보다 시장경쟁이 더 나아"

(ZDNet Korea)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보다는 시장경쟁이 더 낫다는 입장 표명
-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통신사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 따른 5G 이동통신 투자 여력 위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
- ⇒ 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소비자 혜택 강화 및 요금제 개편 시행
- ⇒ 보편요금제 도입 시 신규 투자 축소는 불가피한 만큼 정부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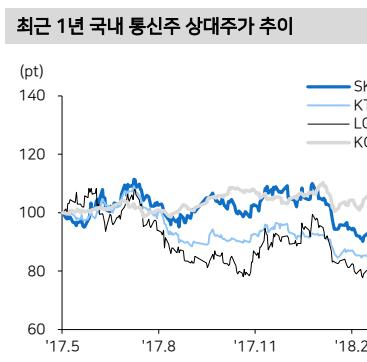
### ▶ 북유럽 "5G로 통신강국 영광 되찾자"... 5개국 정상회의

(ET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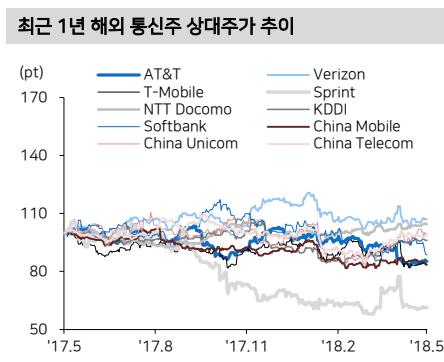
- 스웨덴, 필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5개국은 5G 협력을 위한 '노르딕5G' 협약 체결
- 북유럽 내 단일 5G 경제권을 형성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경제 혁신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
- 북유럽 100% 호환 가능한 5G망 구축을 시작으로 농업, 전력, 드론 등 기술 협력 구상
- ⇒ 5개국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 도출은 5G가 경제 전반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
- ⇒ 에릭슨, 노키아 등 북유럽에 기반을 둔 글로벌 통신장비사들의 실적 활성화 기대

(상업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27,500	17.1	16.0	16.4	1.3	1.4	2.6	2.6	4.4	4.5	4.9	4.8	14.3	12.8
	KT	27,150	6.6	21.7	22.0	1.3	1.3	0.7	0.7	4.4	4.4	2.6	2.5	5.8	5.9
	LG유플러스	12,700	5.1	11.4	11.7	0.8	0.8	0.5	0.5	2.3	2.5	3.3	3.1	10.0	10.1
미국	AT&T	32.5	199.6	156.9	157.7	29.7	30.2	20.8	21.4	50.6	51.1	6.2	6.2	14.8	16.2
	Verizon	48.5	200.5	129.1	130.5	30.0	30.9	18.7	19.2	47.4	48.4	6.7	6.6	40.2	34.8
	T-Mobile	56.6	48.0	43.1	45.3	5.4	6.1	2.8	3.3	11.8	12.7	6.6	6.2	12.3	12.6
	Sprint	5.2	20.7	32.4	32.6	2.6	2.4	5.5	0.0	11.1	11.4	4.8	4.6	14.1	-0.4
일본	NTT Docomo	2,834	97.9	44.2	44.1	9.1	9.2	6.7	6.4	13.9	13.9	6.8	6.6	12.6	12.0
	KDDI	2,942	68.1	45.8	47.2	9.0	9.4	5.3	5.6	14.1	14.5	5.6	5.4	15.6	15.6
	Softbank	7,889	79.3	83.8	84.3	11.6	11.0	9.9	5.7	25.0	24.3	8.5	8.7	22.0	11.9
중국	China Mobile	72.1	188.0	119.8	123.4	19.3	19.7	18.1	18.7	43.8	45.1	2.6	2.6	11.5	11.2
	China Unicom	11.1	43.4	44.6	47.1	1.7	2.6	1.3	2.1	14.0	14.9	3.5	3.3	2.9	4.5
	China Telecom	3.7	38.6	60.2	62.4	4.7	5.2	3.2	3.6	16.6	17.2	3.1	3.0	6.2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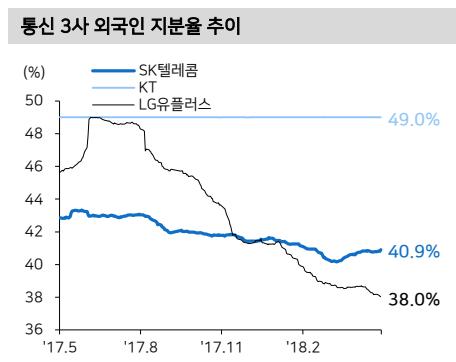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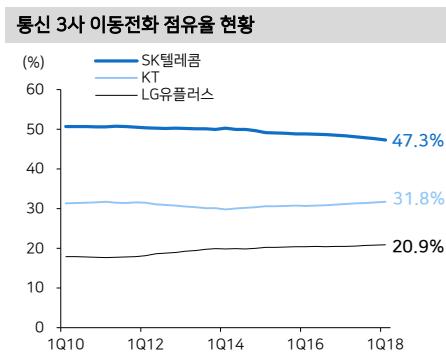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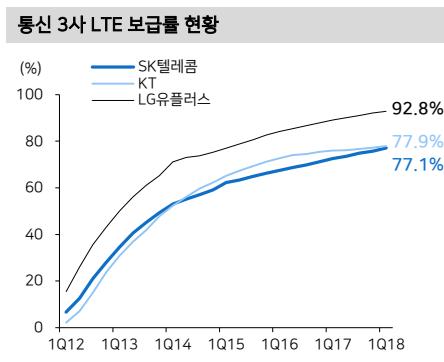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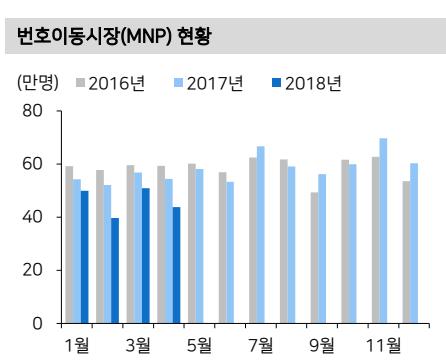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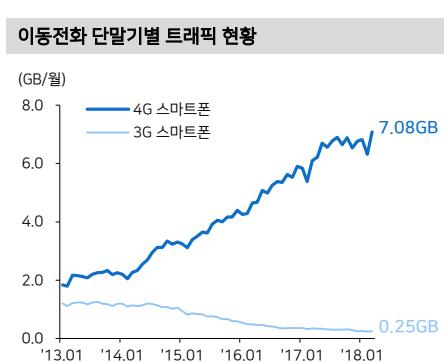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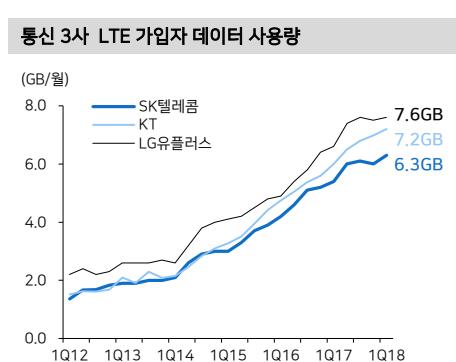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 사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